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김정민·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과 요구사이에 조화의 적합성을 이루는 정도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89명과 여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기질, 그들의 부모가 지닌 기질에 대한 요구,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감, 사회적 관계 지각 및 우울증상을 측정하였다.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질과 부모의 요구 사이의 적합성 정도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능력감 및 사회적 관계지각에 의해서 매개되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하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들 두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외에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각 경로들을 검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접근/철회...>사회적능력감', '규칙성-섭생...>사회적관계지각' 그리고 '사회적관계지각...>우울증상'의 경로가 유의하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접근/철회...>사회적능력감', '규칙성-섭생...>우울증상', '접근/철회...>우울증상' 그리고 '사회적관계지각...>우울증상'의 경로계수들이 유의하였다. 한편 남·녀 모두에게서 사회적 관계지각과 사회적 능력감의 두 변인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유기체적 특성인 기질과 환경적 맥락 사이의 조화의 적합성 정도가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인간의 발달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인간이 환경에 어떤 식으로 적응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어 아동과 양육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양육자의 태도가 아동의 성격 형성 및 행동 발달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이어서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발달적인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

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 역시 그들 자신의 발달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적인 고유의 특성 즉, '기질적 속성'(attributes of temperament)을 지니고 있다. 각 아동은 상이한 반응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것이며, 이러한 상이한 반응은 그 환경내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타인들의 상이한 반응은 다시 아동에게 귀환되어 발달의 '경험적' 측면에 기여한다.

아동이 자신이 지닌 기질적 특성의 결과로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게되는 귀환반응(feedback)의 결과는 Thomas와 Chess(1977)가 제시한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개념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즉, 환경적인 맥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질적인 특성을 지닌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서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omas등은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스타일간에, 그리고 한 개인 내에서 기질, 동기, 능력들 간의 상호작용, 즉 기질 특성과 환경간의 조화의 적합성이 이후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질'(temperament)은 유아기 및 아동기를 통하여 개인이 가진 행동특성의 여러가지 차원들의 조합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Thomas & Chess, 1977), 발달심리학 내에서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검증은 주로 '기질'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사회적인 관계가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이루는 중요한 타인들이 지니는 태도와 가치관 등은 그에게 적응상의 '요구'(demand)가 된다(Lerner & Lerner, 1983).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과 기질적 특성간의 조화의 적합성 여부는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질이 부모의 요구에 적합성을 이루는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인 능력감 및 사회적인 관계의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 발달적 결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질의 정의 및 기질 차원

아마도 최초의 성격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의 '기질설'일 것이다. 그는 체액의 비율적 조합에 따라 다혈질(sanguine), 점액질(phlegmatic), 담즙질(choleric), 그리고 우울질(melancholic)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체액과 기질과의 관계로 개인적 특성 즉,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이후로 '기질'(temperament)은 심리학에서 개인차를 언급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이들 중 어떤 것은 기질이 성격의 유전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Buss & Plomin, 1975, 1984), 또 다른 관점은 기질이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행동유형'이라고 주장한다(Thomas & Chess, 1977).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은 '개인의 적응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상의 개인차'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기질이 곧 '개인차'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은 개인차가 나는 여러가지 차원들 및 경향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차가 주된 관심사일 뿐이다. 그리고 기질에 대한 여러 이론적인 접근들은 모두, 기질이 동일한 환경적 상황에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차원이나 경향성임을 인정한다(윤진과 김정민, 1991).

Thomas와 Chess에 의하면 '기질'이란 행동의 '유형적'(stylistic) 요소이다. 기질은 독립적인 심리적 특질로서 비록 그것이 동기, 능력등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지만 기질은 행동의 '동기'나 '내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무슨" 행동을 "왜"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정의된다. 최근 Windle과 Lerner(1986)는 Thomas와 Chess의 뉴욕장기종단적 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 약칭 NYLS)에

서 제시된 9개의 기질범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기질 차원들을 분류하였다.

(1) 활동수준-일반적(Activity Level-General)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운동적 행동의 수준

(2) 활동수준-수면시(Activity Level-Sleep) : 잠 잘 때의 운동적 행동수준

(3) 접근 대 철회(Approach/Withdrawal) : 자극을 향해 움직이거나, 자극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정도

(4) 융통성 대 경직성(Flexibility/Rigidity) :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용이성

(5) 기분(Mood) :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적 균형의 정도

(6) 규칙성-수면(Rhythmicity-Sleep) : 수면 습관의 규칙성과 주기성

(7) 규칙성-섭생(Rhythmicity-Eating) : 섭생 습관의 규칙성과 주기성

(8) 규칙성-일상습관(Rhythmicity-Daily Habit) : 일상적인 습관의 규칙성 및 예측 가능성

(9) 주의분산성(Distractability) : 외적 자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지각적인 충점을 유지하는 정도

(10) 주의집중력(Persistence) : 한가지 활동을 꾸준히 오래 기간 수행하는 정도

조화의 적합성 모델

Darwin(1872)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행동'이 갖는 의미는 그것이 맥락적인 요구에 잘 조화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Schneirla(1957)가 제시한 '순환적 기능'(circular function)의 개념에서 구체화되었다. 유기체가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의 요구에 잘 들어맞는 특성이나 기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기체의 구조적, 기능적인 특성은 그를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적응에 기여하게 된다는 '순환적 기능'의 개념이 기질맥락 관계에 대한 조화의 적합성 개념에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Thomas와 Chess가 제안한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개념에 의하면, 발달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은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consonance)이다. 즉 환경의 기대, 요구 등이 개인의 능력, 동기, 행동 스타일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발달한다. 반대로 "조화의 부적합성"(poorness-of-fit)의 경우, 환경의 기대, 요구와 개인의 특성, 능력이 부조화되어 발달이 왜곡되거나 부적응적인 기능이 나타나기 쉽다.

개인의 다양한 행동 스타일은, 그의 기질특성이 환경이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에 적응한 결과이다. 또한 개인이 지닌 기질특성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기대나 요구를 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이 기질의 영향은 양방향적인 것이어서 특정한 환경의 영향력은 아동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아동의 기질은 그를 둘러싼 환경내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판단, 태도 및 행동-즉,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때, 아동의 '특정한' 기질 및 유기체적 특성은 부모의 태도, 행동 그리고 가족 내외적 환경요소등의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성과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심리적 발달을 달성한다(윤진과 김정민, 1991).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적응상의 '요구'들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Lerner, 1986, pp.382-383). 첫째, 아동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대하여 부모(또는

중요한 타인)가 지니는 태도·가치·기대의 형태로 표출되는 요구가 있다. 둘째, 부모 자신(혹은 중요한 타인 자신)이 지닌 행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부과되는 요구가 있다. 아동이 부모와 적응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적 특성을 부모의 특성과 조화롭게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을 둘러싼 주위환경의 물리적인 특성들이 요구하는 바, 그 환경 내에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아동은 물리적인 압력이 요구하는 행동적 특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아동 자신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얻는 귀환반응의 기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교사는 한 아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 가치 및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교사는 교실내에서 그 아동으로 인해 학급 전체의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주의 분산성'을 기대한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잠자러 가게 하거나 식사하러 오게 할 때처럼 아이들이 오히려 적당히 주의가 산만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적 특성이 대체로 주의집중적이거나 또는 주의산만한 것은 이들 두 맥락적 요구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 이렇게 볼 때, 학교나 가정에서의 문제행동은 환경적 상황을 '요구'에 아동이 잘 부합하지 못한 결과—즉, 조화의 적합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진과 김정민, 1991).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때, 청소년이 지닌 유기체적 특성(organismic individuality)은 그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한 특성의 여러 요인 가운데에서도 청소년 개인이 지닌 '기질' 즉, 행동적 스타일은 그의 심리적 발

달의 경로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질은 사실상 행동장애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적 정신병리 내에서 이론적·실제적으로 상당한 예언력을 가지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Rutter, 1982, p.1). 그러나 심리적 적응상의 예언적 타당성을 지닌 개념인 기질적 '어려움'(difficultness)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생긴 것일 뿐 기질의 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utter, 1987). 따라서 기질 그 자체보다는 기질과 환경적 요구 사이의 "조화의 적합성"이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Windle, Hooker, Lenertz, East, Lerner & Lerner, 1986).

예를 들면,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의 기질에 대한 요구에 잘 부합되지 못할 경우 이후에 행동장애 등의 정신병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았다(Rutter, Birch, Thomas & Chess, 1964). 즉, '까다로운' 기질특성을 가진 아동은 흔히 '조화의 부적합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부모가 이러한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압력과 요구를 부과할 때 그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병리는 어떠한 기질특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나 적응에 대한 환경적인 요구가 청소년의 기질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일 때에는 잘 적응해오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기질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Lerner & East, 1984). 아동은 환경내의 스트레스를 감소, 수정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조절적'(self-regulatory) 기제를 통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또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조절함

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주위의 맥락적 요구에 조화시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Lazarus, 1980 : Lazarus & Launier, 1978), 그러한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유아들에게는 '기질'이 그들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조절능력을 제공해주는 중심 요소가 된다. 기질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개인 내적(intraindividual) 중재자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같이 대처반응에 중요한 다른 맥락적 중재자들과도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돌보기 어려운 기질특성을 지닌 유아의 경우, 양육자의 관심이나 보살핌을 덜 받게 되어 양육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다(Lerner & East, 1984).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조절적 기제가 개인과 맥락 사이의 조화의 적합성을 이룰 때 잠재적인 스트레스 유발인자는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그 강도가 감소하였다(Folkman & Lazarus, 1980 : French, 1973 : Lazarus, 1980 : Lerner & Lerner, 1983 : Thomas & Chess, 1977 : Thomas, Chess & Birch, 1968). 따라서 개인과 맥락적 요구사이의 '적합성' 여부는 조절 및 중재의 기능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기질이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면 건강한 자아개념과 안정적인 자기존중감이 생겨날 것이 기대된다. 이와같은 자기존중감의 발달은 언제나 하나의 '사회적인 과정'인데, 이때 개인은 그가 수행한 업적의 가치와 숙달감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사회문화적 집단의 기대 및 규준에 근거하여 평가해봄으로써 사회적 기능에 대한 능력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Thomas & Chess, 1980, p.190). 따라서 기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요구나

기대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인 능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고 따라서 자기존중감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기질과 교사 및 또래 친구들이 지니는 행동적 스타일에 대한 요구 사이의 적합성은 자기존중감과 관련되었다. Lerner (1983)의 연구에서 교사나 또래들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기질을 지닌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좋은 적응을 보였고, 측정된 자아존중감 점수도 높았다. 또한 초기 및 후기 청소년들에 있어서 기질과 맥락적 요구의 부적합성은 낮은 수준의 지각된 능력감 및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Windle, Hooker, East, Lerner, Lerner & Lerner, 1986).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검증한 이전 연구들은 한 개인의 기질(행동적 유형)이 사회적 맥락의 요구에 부합될 때 보다 원활하게 기능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예를들면, 국민학생들의 기질-요구 사이에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에 비해서 교사, 또래 및 어머니로부터 보다 호의적인 평정을 받았다(Palermo, 1982). 따라서 아동의 기질-요구 적합성은 그의 적응에 대한 유력한 예언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중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후속연구에서(Lerner, 1983), 보다 우수한 '기질-요구 적합성'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학교 적응에 대한 교사평정에서 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보다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실제의 학업 성적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학교 6학년 초에서 중 1학년 말까지 단기-중단 연구(short-term longitudinal)로 수행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기질, 부모나 또래의 요구 그리고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조사하였을 때 맥락과 상관없이 기

질만을 측정 한 점수보다 기질과 요구간의 적합성이 개인의 적응에 더 밀접히 관련되었다(Talwar, Nitz & Lerner, 1990).

최근 Windle(1992)은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그리고 우울증상 및 비행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생물학적 불규칙성, 새로운 자극으로부터의 회피성,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경직성, 높은 반응강도,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등으로 정의되는(Thomas & Chess, 1977) '까다로운'(difficult) 기질패턴을 지닌 청소년들은 부모나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보다 많은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보다 높은 비행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주는 기질적 특성은 맥락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단순히 기질적 특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특정 맥락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어떤 특정 기질패턴을 '까다로운' 기질로 규정짓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는 연속적인 속성의 심리적 변인 측정된 '기질'을 "순환"(easy), "까다로운"(difficult), 그리고 "더딘"(slow-to-warm-up)이라는 가치부과된 특정 범주로 규정짓는 데서 생기는, '유형론적 사고'('typological thinking'; Dobzhansky, 1970)라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기질-요구 적합성'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표상'(사회적 능력감)과 '타인에 대한 표상'(사회적 관계지각)의 '인지적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요구나 기대에 적절히 조화되기 어려운 기질을 지닌 청소년은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청소년이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관계에 지각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적응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

서울 시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89명, 여학생 250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부모'는 원칙적으로 어머니를 조사대상자로 하였고, 남학생 부모의 경우 82.8%가 여학생 부모의 경우 91.3%가 어머니에 의해 작성되었다. 실제 자료분석에는 남학생-부모의 252쌍, 여학생-부모의 218쌍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1) 기질: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차원에서 기질을 측정하는 54개의 문항들도 구성된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Windle & Lerner, 1986)를 사용하였다.

2) 요구: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맥락특유이론」(DOTS-R: Ethnotheory)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를 변형하여 만든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맥락특유이론」은 청소년의 기질에 관련되는 여러 맥락적인 요구들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부모와 또래 등 중요한 타인이 가지는 기질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봄으로써 각 기질특성에 대하여 중요한 타인이 지니는 태도·가치·기대의 형태로 부과되는 '요구'를 측정한다. Super와 Harkness(1981)에 의하면 서로 다른 맥락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기질적 속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념을 지니며,

한 특정 맥락속의 사람들이 지니는 독특한 신념 체계를 “맥락특유이론”(ethnotheory)이라 한다. 이렇게 볼 때, 서로 다른 맥락들간에는 기질적 까다로움에 대한 서로 다른 “맥락특유이론”들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용 질문지의 경우, “아이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다.”와 같은 문항을 제시하고 그의 자녀가 이와같이 행동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즉 언제나 이러한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부모가 묘사된 행동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수록 그 ‘어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3) 사회적 능력감: 「텍사스 사회행동 척도」(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

본 연구에 쓰인 「텍사스의 사회행동 척도」(Helmreich & Strapp, 1974)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존중감(self-esteem) 즉 ‘사회적 능력감’(social competence)을 측정하는 1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사회적 관계지각: 「개정된 UCLA 고독감 척도」(UCLA Loneliness Scale-Revised)

「개정된 UCLA 고독감 척도」(Russell, Peplau & Cutrona, 1980)는 현재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부적절감, 그리고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인관계와 실제의 대인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5) 우울증상: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 Revised CES-D-K)

「역학연구-우울 척도」(Radloff, 1977)은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게 되어있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Noh, Avison 그리고 Kasper (1992)의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기초로 하고, 「역학연구-우울척도: 청소년용」에 추가된 2개 문항을 더한 총 26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조사 절차

연구 목적 및 질문지의 내용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교사나 대학원생 연구조교가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 조사도구를 한데 모은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약 50분간 응답하게 하였다. 학생들을 통해 배부된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맥락특유이론-부모용」 질문지는 약 일주일 후까지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교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결 과

청소년이 가진 기질과 부모의 요구 사이의 적합성 정도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능력감 및 사회적 관계 지각에 의해서 매개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질-요구 적합성 점수’는 10개의 기질 차원 각각에서 청소년 스스로 평정한 기질의 표준점수(Z score)를 그 청소년의 부모가 평정한 요구의 표준점수(Z score)에서 감산하여 산출하였다(즉, 「개정판 기질차원검사: 맥락특유이론」 표준점수 - 「개정판 기질차원검사」 표준점수). 따라서 각 청소년이 10개 차원의 적합성 점수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질-요구 적합성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높은 수준의 기질 성향을 지닐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질 차원에서 청소년의 기질이 이에 대한 부모의 요구 수준에 적합하게 들어맞거나 능가하는 경우 부모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에 비해 보다 적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Lerner, Lerner & Zabski, 1985).

한편, 본 연구에서 적합성 점수를 산출한 방식이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적합성 점수는 원 점수 간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스스로가 기질을 평정하는 「개정판 기질차원검사」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기질에 대한 요구를 평정하는 「개정판 기질차원검사: 맥락특유이론」의 두 측정도구는 동일한 척도 속성을 지닌 것으로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들 두 척도에서 얻어진 점수들을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였다. 둘째, 이전 연구들에서는 부모나 또래

혹은 교사 등 중요한 타인이 지니는 맥락적 요구에 대한 지표로서, 주로 요구 점수들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또래의 요구에 대한 기질 적합성 점수는 각 개인의 기질 점수에서 또래들이 평정한 요구점수의 평균치를 뺀 값인데 이는 결국 개인의 기질 점수에서 상수를 빼어준 값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결국 기질수준을 측정할 점수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선형변환(linear transformation)은 통계적인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Lerner(1984)가 지적했듯이 오히려 변환점수가 갖는 성질때문에 원 점수보다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이와같이 계산된 적합성 점수는 맥락에 따른 요구수준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청소년의 기질 점수와 그 청소년의 부모가 평정한 요구 점수를 짝지워서(match)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모형 검증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관 행렬표(남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0												
2.	-.469	1.000											
3.	-.343	.577	1.000										
4.	-.025	-.025	-.106	1.000									
5.	-.035	-.024	-.056	.142	1.000								
6.	-.398	.106	.034	-.048	.047	1.000							
7.	-.196	.137	.177	-.274	-.047	.260	1.000						
8.	-.195	.163	.150	-.022	-.040	.415	.240	1.000					
9.	-.074	-.045	-.002	-.223	-.237	.255	.238	.187	1.000				
10.	-.103	-.114	-.015	-.182	-.202	.297	.191	.189	.477	1.000			
11.	-.133	.000	-.053	-.155	-.098	.286	.044	.160	.376	.269	1.000		
12.	-.128	.084	.010	-.333	-.092	.061	.043	-.030	.201	.228	.083	1.000	
13.	-.091	.125	.109	-.298	-.097	.029	.109	.011	.135	.156	.045	.567	1.000

1. 활동수준-일반적, 2. 활동수준-수면시, 3. 접근/철회, 4. 융통성/경직성, 5. 기본, 6. 규칙성-수면, 7. 규칙성-섭생, 8. 규칙성-일상습관, 9. 주의분산성, 10. 주의집중력, 11. 사회적능력감, 12. 사회적관계지각, 13. 우울증상.

[표 2] 모형 검증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관 행렬표(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0												
2.	-.505	1.000											
3.	-.267	.529	1.000										
4.	-.083	-.066	-.148	1.000									
5.	-.051	-.109	-.163	.432	1.000								
6.	-.487	.178	.001	.077	-.076	1.000							
7.	-.203	.115	.047	-.179	-.120	.290	1.000						
8.	-.294	.241	.104	-.028	-.028	.426	.238	1.000					
9.	-.083	.133	.083	-.298	-.150	.217	.086	.261	1.000				
10.	-.128	.142	.205	-.185	-.223	.264	.157	.289	.473	1.000			
11.	-.038	.019	-.024	-.156	-.014	.119	.042	.205	.492	.366	1.000		
12.	-.142	.217	.210	-.253	-.168	.087	-.012	.121	.384	.161	.176	1.000	
13.	-.085	.103	.184	-.361	-.247	.134	.063	.147	.364	.324	.247	.496	1.000

1. 활동수준-일반적, 2. 활동수준-수면시, 3. 접근/철회, 4. 융통성/경직성, 5. 기분, 6. 규칙성-수면, 7. 규칙성-섭생, 8. 규칙성-일상습관, 9. 주의분산성, 10. 주의집중력, 11. 사회적능력감, 12. 사회적관계지각, 13. 우울증상.

만일 연구의 가설대로 기질-요구의 부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능력감과 사회적 관계지각의 두 변인에 의해 매개된다는 '매개변인 모형'(mediator variable model)이 지지되려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했듯이, 기질-요구의 부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모수치 추정값(parameter estimate)은 유의미하지 않고, 사회적 능력감 및 사회적 관계지각의 두 변인에 의한 '간접효과'에 대한 모수치 추정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매개변인 모형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행렬표를 산출하고(표 1.과 표 2. 참조), 선형구조 관계론(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LISREL 7) 프로그램(Jöreskog & Sörbom, 1988)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모형은 기질-요구 부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고 간주하는 모형이므로 그림 1.(단순화한 그림)에서 10개의 기질 차원

으로부터 우울증상으로 가는 경로들의 계수인 GA(3, 1), GA(3, 2), GA(3, 3), GA(3, 4), GA(3, 5), GA(3, 6), GA(3, 7), GA(3, 8), GA(3, 9), GA(3, 10)가 모두 0에 고정된 모형이고 따라서 자유도는 10이 된다. 반면에,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은 고정된 계수가 없는 자유도 0, X^2 값이 0인 모형으로서 이는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변량·공변량과 실제의 변량·공변량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함을 뜻한다. 따라서 매개모형이 포화모형에 비해 관찰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열등하지 않다면 즉, 그 합치도(Goodness-of-Fit)가 좋다면 절약의 법칙(principle of parsimony)에 의해 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형인 매개모형이 선호된다. 그리고 기질-요구 부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사회적 능력감 및 사회적 관계지각의 두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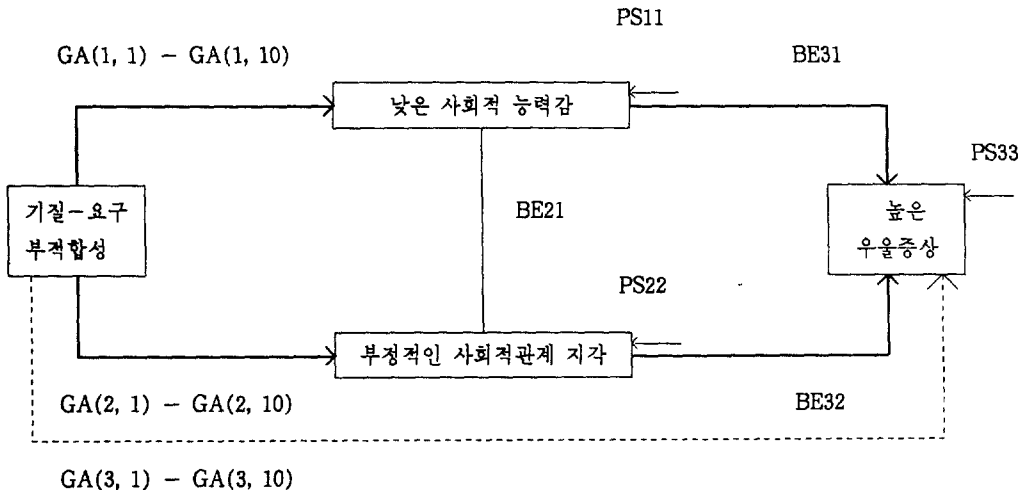
매개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최대우도

추정방식(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으로 각 계수들을 산출하였다. 포화모형과 매개모형을 검증하여 산출된 각 경로의 계수 값은 표 3.에, 그리고 각 모형의 합치도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경로 계수값들은 최대우도추정에 의해 산출된 LISREL 추정치(LISREL estimates)이다. 먼저 모형에 의해 역산된 예측 변량·공변량과 실제의 변량·공변량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는 모형 전체의 합치도 지수인 X^2 값을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매개모형의 X^2 값이 11.88($p=.293$)로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매개모형이 기각되지 않고, 포화모형보다 더 우수한 모형으로 선호된다. 또한 표 6.의 합치도지표(GFI : Goodness-of-Fit)와 수정된 합치도지표(AGFI : Adjusted Goodness-of-Fit), 그리고 평균잔여인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이 각각 0.991, 0.915, 0.019인 것으로 나타나 이 모형의 합치도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개모형의 X^2 값이 18.

26($p=.051$)으로서 근소한 차이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매개모형이 기각되고 포화모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록 X^2 값은 ML(maximum likelihood)이 작아도 피험자 수가 크면 모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표 6.에 제시된 매개모형의 합치도 지수들을 고려해 볼 때, 매개모형의 합치도가 그리 나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 외에도 직접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별적 계수의 유의도 검증은 유사 t -검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t -분포의 수학적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 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면 그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박광배, 1990). 이와같은 기준에 준하여 각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접근/철회...>사회적 능력감'(GA13, $t=-4.443$), '규칙성-섭생...>사회적 관계지각'(GA27, $t=-2.464$)의 두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지각...>우울증상'(BE32,



(그림 1) 기질-요구 부적합성, 사회적능력감, 사회적관계지각, 우울증상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형

[표 3] 모형의 경로계수값

경로계수	남 자		여 자	
	포화모형	매개모형	포화모형	매개모형
GA(1, 1)	-0.126	-0.126	-0.096	-0.096
GA(1, 2)	-0.008	-0.008	0.036	0.036
GA(1, 3)	-0.354*	-0.354*	-0.414*	-0.414*
GA(1, 4)	-0.141	-0.141	-0.079	-0.079
GA(1, 5)	-0.30	-0.030	-0.104	-0.104
GA(1, 6)	0.066	-0.066	0.063	0.063
GA(1, 7)	0.033	0.033	-0.001	-0.001
GA(1, 8)	-0.061	-0.061	0.014	0.014
GA(1, 9)	-0.139	-0.139	-0.144	-0.144
GA(1, 10)	-0.036	-0.036	0.011	0.011
GA(2, 1)	-0.027	-0.027	-0.047	-0.047
GA(2, 2)	-0.063	-0.063	-0.041	-0.041
GA(2, 3)	-0.090	-0.090	-0.151	-0.151
GA(2, 4)	0.058	0.058	0.005	0.005
GA(2, 5)	0.133	0.133	0.126	0.126
GA(2, 6)	-0.039	-0.039	0.042	0.042
GA(2, 7)	-0.186*	-0.186*	0.061	0.061
GA(2, 8)	-0.013	-0.013	-0.071	-0.071
GA(2, 9)	0.016	0.016	0.134	0.134
GA(2, 10)	0.087	0.087	-0.051	-0.051
GA(3, 1)	-0.108	0.000 ⁺	-0.054	0.000 ⁺
GA(3, 2)	-0.025	0.000 ⁺	-0.039	0.000 ⁺
GA(3, 3)	-0.110	0.000 ⁺	-0.154*	0.000 ⁺
GA(3, 4)	0.052	0.000 ⁺	-0.016	0.000 ⁺
GA(3, 5)	0.067	0.000 ⁺	-0.003	0.000 ⁺
GA(3, 6)	0.006	0.000 ⁺	-0.068	0.000 ⁺
GA(3, 7)	0.051	0.000 ⁺	0.182*	0.000 ⁺
GA(3, 8)	-0.081	0.000 ⁺	-0.089	0.000 ⁺
GA(3, 9)	-0.122	0.000 ⁺	0.063	0.000 ⁺
GA(3, 10)	0.059	0.000 ⁺	0.078	0.000 ⁺
BE 21	-0.484*	-0.484*	-0.519*	-0.519*
BE 31	-0.144	-0.093	-0.079	0.000
BE 32	0.509*	0.533*	0.474*	0.529*
PS 11	0.801	0.801	0.728	0.728
PS 22	0.715	0.715	0.689	0.689
PS 33	0.620	0.660	0.653	0.720

*0.00에 고정된 계수(fixed parameter)

* t > 1.96

[표 4] 모형의 합치도지수

합치도지수	남 자		여 자	
	포화모형	매개모형	포화모형	매개모형
χ^2	0.00	11.88	0.00	18.26
자유도(df)	0	10	0	10
α	1.00	2.293	1.00	0.051
GFI	1.000	0.991	1.000	0.986
AGFI		0.915		0.872
RMSR	0.000	0.019	0.000	0.029

$t=7.294$)의 경로가 매우 유의하였고, '사회적 능력감...>우울증상'(BE31, $t=-1.943$)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능력감 변인 보다는 사회적 관계지각 변인이 더욱 강력한 매개변인임을 암시한다. 한편 사회적 능력감 변인과 사회적 관계지각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BE21, $t=-6.835$).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질-요구 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외에 직접효과도 존재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접근/철회...>사회적 능력감'(GA13, $t=-5.489$), '규칙성-섭생...>우울증상'(GA37, $t=2.451$), 그리고 '접근/철회...>우울증상'(GA33, $t=1.969$)의 경로계수들이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들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지각은 유력한 매개변인인 반면 (BE32, $t=6.500$), 사회적 능력감 변인은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하지 않았다(BE31, $t=-0.980$). 역시 사회적 관계지각과 사회적 능력감의 두 변인간사이에 부적상관이 있었다(BE21, $t=-7.116$).

논 의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질과 부모의 요구 사이의 적합성 정도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능력감 및 사회적 관계지각에 의해서 매개되는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외에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개인이 지닌 기질이 부모의 요구에 적절히 들어맞는 정도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우울증상에 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 능력감보다는 사회적 관계지각이 더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하였다. 즉, 청소년이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정서적인 지지의 결핍을 느끼는 정도나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부적절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상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질에 대한 연구는 발달의 인지적 측면보다는 사회·정서적 측면을 주로 반영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Rutter, 1987). 그러나 이러한 매개변인의 존재는 청소년기의 기질 적합성을 연구하고자 할 때, '인지적 과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두 매개변인의 비중이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지각'이 보다 비중있는 매개변인이었고, '사회적 능력감'의 변인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매개변인이었다.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능력감' 변인의 우울증상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단지 '사회적 관계지각'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었다. 사실상, 「텍사스 사회행동척도」상의 점수는 여성성(femininity)보다는 남성성(masculinity)과 더 크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며(Helmreich & Stapp,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능력감" 구인이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에게서 '사회적 능력감'과 '사회적 관계지각' 사이에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에서 불만족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다 제한된 사회적 활동 및 제한된 사회적 관계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Russell, Peplau & Cutrona, 1980),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확신감이 없는 사람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교적인 모임을 꺼려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적 능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낮은 사회적 능력감과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지각의 악순환이 거듭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자기존중감, 즉 낮은 사회적 능력감을 가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사회적 지지(특히 부모로부터의 강한 정서적 지지)를 느끼는 것이 우울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예방을 위한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여러 기질 차원의 적합성 중에서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가장 강력한 예언력을 가진 것은, 새로운 상황이나 사물 또는 낯선 사람을 접했을 때 그 자극을 향해 움직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멀리 회피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접근 대 철회'(Approach/Withdrawal) 차원의 적합성이었다. 연구결과로 보아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가 낯설거나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요구에 못 미치는 기질성향을 지닌 청소년일수록 우울성향이 높았다. 이 차원은 부모, 교사, 혹은 또래의 여러 맥락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기질-요구 적합성과 심리적 적응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일관성 있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Lerner, Lerner, & Zabski, 1985; Talwar, Nitz & Lerner, 1990).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접근 대 철회'의 기질적 특성은 발달상의 일관성과 생리적 기원이 밝혀져 있는 유일한 기질 차원이라는 점이다. Kagan과 Moss (1962)가 관찰과 면담을 통해 장기종단 연구를 수행한 결과, 생후 첫 3년으로부터 성인기까지의 발달과정을 통해 연속성있게 유지된 유일한 심리적 특질은 "행동적 제지성"(behavioral inhibition)이었다(Kagan, 1989). 그런데 Kagan이 지칭한 행동적 제지성의 기질 차원은 "낯선 상황, 사물, 또래 등에 대한 사회적 행동 그리고 교감 신경계의 반응"(Kagan, 1991 p.857)으로 정의되며 이는 곧 '접근 대 철회'기질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Thomas & Chess, 1991). 또한 후속된 연구들에서 행동적 제지성과 관련되는 생리적 지표들(심장박동수, 동공이완, 근육긴장 등)과 그 기저의 생리적 회로(physiological circuit)가 밝혀져 이 기질특성이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 맥락하에서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는 유전된 생리적 과정에 근거

를 둔 기질 특성이라고 보는 견해를 지지해 주었다 (Kagan, 1991). 그런데 Thomas와 Chess의 기질 연구에서는 기질을 유전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반대 하지만 기질적인 개인 특성의 원인론(etiology)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므로 태내기의 호르몬 분비나, 생리적 화학적인 요소가 대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Goldsmith et al., 1987). 특히, 기질특성과 정서적 차원간의 관계를 행동유전학적 접근에 의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유전-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유전/환경 상관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행동유전학 방법론(예 ; Plomin, 1986)은 기질특성과 정서적 차원간의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규칙적-섭생'(Rhythmicity-Eating)의 기질 차원에서 기질과 부모요구 사이의 적합성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지각을 통해 우울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부모 응답자는 대부분이 어머니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섭생 행동의 주기성, 특히 음식물 섭취량과 식욕의 규칙성 측면에서 기질적인 까다로움이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귀환반응(feedback)에 의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에 부족함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지각과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과 교사의 기대간의 적합성이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독고인혜, 1992), '접근/철회'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차원이었으나, '규칙성-섭생' 차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규칙성-수면'의 기질 차원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비록 그러한 차이의 근원이 상이한 맥락인지 혹은 연령 차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떤 기질특성이 적응에 특히 중요하게 하는 문제는 연령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기질의 영향력은 발달적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부모-자녀' 맥락에서 청소년의 기질특성과 부모 요구 사이의 적합성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사회적 능력감 및 사회적 관계의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청소년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게 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이 지닌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 시기 심리적 적응의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발달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부적응을 예방·치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질 적합성의 영향이 인지적 과정에 의해 상당 부분 매개된다는 사실은 부모나 다른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사회적·정서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 청소년이 지닌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질 적합성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그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즉 부모, 교사 또는 또래들로 하여금 그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보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장려하고 지도하도록 해줄 수 있다. 이때, 청소년 스스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개인은 자신의 발달에 능동적인 주체자이며 발달의 가소성을 지닌 존재이다. 특히 청소년은 아동과는 달리 '자기통찰력'(self-insight)의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Thomas & Chess,

1991). 예를 들어, 자신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느리고 수줍음이 많다는 사실(즉, 접근/철회의 차원에서 높은 철회성)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상황에 익숙해지리라는 기대하에 낮은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을 극복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낮은 것에 대한 회피 경향성이 점차로 감소하고 결국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기질적인 '조화의 적합성' 개념을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모-자녀, 부부, 형제 및 자매 등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친구, 동료,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그리고 경영자와 근로자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갈등과 감정적인 충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그 해결책 및 대안의 탐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윤진과 김정민, 1991).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제한점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서울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므로 보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 혹은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유아·아동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평생 발달의 관점에서 볼때,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성인기 및 노년기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집단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행동이 맥락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

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횡단법(cross-sectional study)으로 수행되었으나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보다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종단적(longitudinal)방법을 통하여 기질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보다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 맥락만을 다루었으나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의 압력이나 영향력이 증가하며 학교생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므로 또래나 교사등의 여러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마다 중시하는 맥락이 다를 수 있으며, 각 맥락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기질-맥락 적합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기의 기질을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동기에서처럼 쉽지는 않다(Thomas & Chess, 1991).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서 기질, 동기, 능력의 개인내적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지고, 부모-자녀 관계, 가족 내외적 환경 및 사회생활이 이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므로 단순히 기질을 구분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서구 사회에서 시행된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한 「개정판 기질 차원 검사」가 신뢰도나 타당도 측면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몇몇 하위 척도의 내적 일관성지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므로 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질의 각 차원당 문항수가 적은 편이므로 새로운 문항의 개발 및 첨가로 검사도구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질에 대한 '맥락적 요구'를 측정하는 도구를 정교화하여 맥락들간의 차이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질 특성에 대하여 부모

가 지니는 태도·가치·기대의 형태로 부과되는 요구만을 측정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적응상 요구의 다른 측면들 즉, 부모(혹은 중요한 타인) 자신이 지닌 행동특성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요구, 그리고 청소년이 그 환경 내에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순응해야 하는 주위 환경의 물리적인 특성들로 인한 요구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독고 인혜(1992). 아동기질과 교사요구 적합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 진, 김정민(1991). 인간 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이론적 기초와 그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43-59.
- 박광배(1990). 중다변인의 분석. 1990년도 한국심리학회 하계 연수회, 한국심리학회편(pp. 91~145).
- Bar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rwin, C. (1872). *The Expression of emotions in men and animals*. London: John Murray.
- Dobzhansky, T. (1970). *Genetics of the evolutionary proce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olkman, S., & Lazarus, R. S. (1983). An analysis of coping in middle-age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rench, J. P. R., Jr. (1973). Organizational stress and individual strain. In A. J. Marrow(Ed.), *The failures of success*.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 Goldsmith, H. H., Buss, A. H., Plomin, R., Rothbart, M., Thomas, A., Chess, S., Hinde, R., & McCall, R.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15-529.
- Helmreich, R., & Stapp, J. (1974). Short form of the 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TSBI), an objective measure of self-esteem.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4, 473-475.
- Jöreskog, K. J. & Sörbom, D. (1988). *LISREL 7: Estimation of linear structural equation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s*.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1991). Temperament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 856-862.
- Kagan, J., & Moss, H. A. (1962). *Birth to maturity*. New York: Wiley. (Reprinted b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83).
- Lazarus, R. S. (1980).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L. A. Bond & J. C. Rosen(Eds.), *Competence and coping during adulthood*.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Lazarus, R. S. & Launir, R. (1972). Stress-related tra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 A.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New York: Pienum.
- Lerner, J. V. (1983). The role of temperament in psychosocial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ts: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149-157.
- Lerner, J. V. (1984). The import of temperament for psychosocial functioning: Tests of a "goodness of fit" model. *Merril-Palmer Quaterly*, 30, 177-188.
- Lerner, J. V., & Lerner, R. M. (1983). Temperament and adaptation across lif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P. B. Baltes & O. G.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Lerner, J. V., Lerner, R. M., & Zabski, S. (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 rated academic performance :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125–136.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ed.). New York : Random House.
- Lerner, R. M., & East, P. L. (1984). The role of temperament in stress, coping,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early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5, 148–159.
-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1-101). New York : Wiley.
- Noh, S., Avison, W., & Kasper, V. (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 Palermo, M. (1982). *Child temperament and contextual demands : A test of the goodness-of-fit model*. Unpublishe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Plomin, R. (1986). Behavioral genetic methods. *Journal of Personality*, 54, 226–26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 Academic Press.
- Russell, D., Peplau, L., & Cutrona, C.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Rutter, M. (1982). Introduction. In R. Porter & G. Collins (Eds.), *Ciba Foundation Symposium 89 :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London : Academic Press.
- Rutter, M. (1987). Temperament, personality, and personality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 443–458.
- Rutter, M., Birch, H. G., Thomas, A., & Chess, S. (1964).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in infancy and the later development of behavior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0, 651–661.
- Schneirla, T. C. (1957).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comparative psychology. In D. B. Harris (Ed.), *The concept of development* (pp. 78–108).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uper, C. M., & Harkness, S. (1981). Figure, ground and gestalt : The cultural context of the active individual. In R. M. Lerner & N. A. Busch-Rossnagel (Eds.),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Talwar, R., Nitz, K., & Lerner, R. M. (1990). Relations among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parent and peer demands, and adjustment : A test of the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13, 279–29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Thomas, A., & Chess, S. (1980).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Thomas, A., & Chess, S. (1991). Temperament in adolescence and its functional significance.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 Vol 2* (pp. 1131–1140).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Inc.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al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Windle, M. (1992).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 Interrel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1), 1-21.
- Windle, M., Hooker, K., Lerner, R. M., East, P. L., Lerner, J. V., & Lerner, R. M. (1986). Tempera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84–392.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2), 213–230.

Abstract

The effects of temperamental goodness-of-fi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ungmeen Kim · Gene Yo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goodness-of-fit between adolescent's temperament and their parents' demands on social competence, the percep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samples of 289 male and 250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ediator variable models were specified via path analyses. Among male adolescents, LISREL analyses indicated that significant paths existed between the fit score of Approach/Withdrawal and social competence, between the fit score of Rhythmicity-eating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between the percep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case of female adolescents, there were significant paths between the fit score of Approach/Withdrawal and social competence, between the fit score of Rhythmicity-eating and depressive symptoms, and between Approach/Withdrawal and depressive symptoms.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relationships. Overall, the findings were supportive of the contributory role of temperamental goodness-of-fit in the prediction of mental health for adolescents.